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¹⁾

신성근 신부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갈라 4,4-5 참조).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셨다.”²⁾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주님께서 당신 몸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그분의 모든 성인과 일치한다. 그중에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며 공경한다.³⁾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어 구세주를 세상에 낳아 주신 동정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오. 또 구세주의 참여머니로 인정하고 공경한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시는 마리아께서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 이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공경을 받으시며,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⁴⁾

1. 구원 계획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1) 성경과 성전에 예고된 구세주의 어머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존귀한 성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안에서 말으신 구세주 어머니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혀 주며 마치 눈앞에 보여주듯 제시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 속에 서서히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세주의 어머니인 여인의 모습을 한 걸음씩 더욱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즉 죄에 떨어진 첫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뱀을 이기리라는 승리에 대한 약속 안에⁵⁾ 그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동정녀이다.⁶⁾

1) 교회 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3) 교회 헌장, 52항 참조.

4) 교회 헌장, 53항 참조.

5) 창세 3,15 :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6) 이사 7,14 :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미카 5,2-3 :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 여인 곧 마리아는 신뢰로 주님께 구원을 바라고 받는 주님의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뻐어난 분이시다. 약속의 오랜 기다림 곧 때가 차자 하느님의 아들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받아들이셨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신비로 우리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셨다.⁷⁾

2) 주님 탄생 예고와 마리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강생에 앞서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의 동의를 먼저 원하셨다. 이는 첫 여인이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바지하였지만, 마리아의 순종으로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 주셨고, 하느님에게서 이 위대한 역할에 맞갖은 은혜를 받으셨다. 이로 인해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공경하는 관습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즉 성령의 빛을 가득히 받으신 나자렛의 동정녀께서는 잉태 소식을 알리는 천사에게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인사를 받으시고(루카 1,28 참조), 그리고 대답하셨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렇게 아담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시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도 없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드님 밑에서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다.⁸⁾

3) 마리아와 예수님⁹⁾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드님의 삶과 늘 결합해 있으셨다. 먼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으셨을 때, 여인 중에 복되시다는 인사를 받으셨다. 이때 선구자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다(루카 1,41-45 참조)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께서 동정을 간직하신 채 당신의 만아드님을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기꺼이 보여주시던 성탄 때에 그 결합이 드러난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께 아드님을 봉헌하실 때, 아드님이 장차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리라는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셨다(루카 2,34-35 참조). 어린 예수님을 잃고 애태우며 찾던 그 부모는 성전에서 당신 성부의 일에 열중하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1,22-23 :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7) 교회 헌장, 55항 참조.

8) 교회 헌장, 56항 참조.

9) 교회 헌장, 57-58항 참조.

시던 예수님을 발견하였으나 아드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하셨다(루카 2,41-51 참조).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결합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갈릴래아의 카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전구로 구세주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끌어 내셨다(요한 2,1-11 참조). 예수님의 복음 선포 과정에서는 아드님께서 혈육의 관계나 유대를 넘어(루카 2,19.51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신(마르 3,35; 루카 11,27-28 참조)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복되신 동정녀께서도 신앙의 나그넷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지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당신을 결합하셨다(요한 19,25 참조), 마침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27 참조) 라고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다.

4) 예수님 승천과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은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만 전념하였으며”(사도 1,14 참조), 마리아께서도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이미 당신을 덮어 그느르셨던 성령의 은혜를 당신의 기도로 간청하셨다.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심으로써,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¹⁰⁾

2.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교회

1) 구원의 협력자이신 마리아¹¹⁾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강생과 함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가 되신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구세주의 동반자이셨으며, 또한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수난에 함께 하셨다. 이는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침내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

10) 교회 헌장, 59항 참조.

11) 교회 헌장, 60-62항 참조.

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하지만 이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교회의 모범(전형:典型)이신 동정녀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¹²⁾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구세주이신 아드님과 일치하시고, 당신의 탁월한 은총과 역할로 교회와도 밀접히 결합하여 계신다. 곧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에서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다.

교회는 마리아의 깊은 성덕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본받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여 교회 자신도 어머니가 된다. 실제로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세례로써,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에게서 난 자녀들을 불멸의 새 생명으로 낳는다.

교회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이미 완덕에 이르러 어떠한 티나 주름도 없이 서 있지만,¹³⁾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성덕 안에서 자라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눈을 들어 뽑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본다. 교회는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받들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본다. 마리아께서는 교회로부터 찬미와 공경을 받으실 때, 당신 아들과 그 희생으로 또 성부의 사랑으로 교우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자신의 탁월한 전형과 비슷해져, 끊임없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아가며,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도직 활동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우러러보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바란다.

3.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경¹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모든 천사와 사람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신다. 사실 오랜 옛적부터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공경을 받으시고, 교우들은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분의 보호와 도움을 전구(轉求)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으로다.”(루카 1,48-49 참조) 하신 마리아의 예언 같은 말씀대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마리아 공경은 존경과 사랑과 기도와 모방에서 놀랍게 발전하였다. 그 공경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강생하신 말씀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께 보여 드리는 흠숭(欽崇)

12) 교회 헌장, 63-65항 참조.

13) 에페 5,27 :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4) 교회 헌장, 66-67항 참조.

의 공경과는 본질에서 다른 것이며, 또한 그 흠숭을 최대한 도와준다.¹⁵⁾ 성모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심을 교회는 건전한 정통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 또 신자들의 품성과 기질에 따라 승인했다.¹⁶⁾

이로써 교회는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공경, 특히 전례적 공경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교도권이 권장하여 온 성모 신심의 실천과 관습을 중시하며, 지나간 시대에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에 관하여 결정한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성모님의 독특한 품위를 숙고하는 데에서 거짓 과장이나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한다.

그리고 진정한 신심은 쓸모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한 맹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천주 성모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라”(루카 1,48).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적 요소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신다. 사실 오랜 옛적부터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로 공경을 받으시고, 신자들은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 들어가 도움을 간청한다. …… 공경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강생하신 말씀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께 보여 드리는 흠

15) 교회가 성모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한다고 해서 사람이신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향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최상의 흠숭지례(欽崇之禮)를 드리고, 성모께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다른 성인들께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드리는 것이다.

16) 1)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마리아의 예수 잉태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마태 1,18 참조).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라고 하자,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루카 1,35)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기 전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평생 동정이셨음을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다.

2)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채 태어나셨으며, 죄에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다.

3) 성모님 승천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 오랫동안 교우들 사이에 전승돼 오던 신앙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다. "지상의 생애가 끝나자 죄에 물들지 않은 하느님의 어머니요 항상 동정이신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상과 같은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신심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크신 은혜와 세말에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보증이 된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큰일을 하셨으므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데 그 뜻이 있다.

송의 공경과는 본질에서 다른 것이며, 또한 그 흠숭을 최대한 도와준다.” 이러한 마리아 공경은 천주의 성모님께 바쳐진 전례 축일들과 “복음 전체의 요약”인 묵주 기도와 같은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예 나타난다(971항).